

## 야옹이심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연말 쇼핑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말 쇼핑 예산 부담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7월 구매자물가지수가(CPI)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월가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5.9%보다 높았고, 1950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큰 부담을 깨닫고 있는 상태이라고 진단하였다. 딜로이트는 '며칠전 1,3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0% 이상이 연말 쇼핑 지출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혀졌다. 이어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출 크기에 충격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이 28%가량 많아진 수준'이라고 이야기 **일본 이심** 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출 덩치를 낮추고 있지 않다'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 올해 연말 쇼핑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7~1%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한편 딜로이트는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다. 우선적으로 전년 코로나 정황이 발생한 바로 이후 전 국민적으로 제품 수요가 줄어들자, 기업들 역시 상품 제공량을 큰 **해외 이심** 폭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허나 팬데믹이 극복되는 공정에서 아예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기업들의 공급량이 소비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공급망 병목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딜로이트는 '요즘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려 61% 이상이 품질 정황을 경험했다'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상품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대상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공급망 병목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면서 '공급난이 해소될 경우 인플레이션 역시 당연하게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했었다.